

저녁밤하늘

Operation : Midnight

챕터 1 시나리오

정민영

2024-4-3

<u>프롤로그</u>	2
<u>제 1작전</u>	3
<u>Scene#1(수송헬기 내부, 작전 브리핑)</u>	3
<u>임무1[관제탑 점령(다니엘)]</u>	5
<u>Scene#2(공장 부지)</u>	5
<u>임무2[기밀문서 탈취(제이크)]</u>	7
<u>Scene#3(사무실 내부)</u>	7
<u>임무3[요원 구출(레이첼)]</u>	9
<u>Scene#4(물류 창고)</u>	9
<u>임무4[공장 수색(게리)]</u>	11
<u>Scene#5(군수공장 내부)</u>	11
<u>임무5[아머드 슈트 프로토 타입(보스전)]</u>	13
<u>Scene#6(공장 부지)</u>	13

프롤로그

아우로라 대륙은 행성 자체의 자기장으로 인해 부유석이라는 물질이 생성된다.

이 부유석은 초전도체와 성질이 유사해 이를 이용한 기술을 개발하려 했지만 이 물질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부유석 특유의 높은 반응성은 타 물질과 접촉할 시 쉽게 부서져 내렸고 이 때문에 흔해빠진 쓸모없는 돌맹이로 인식됐다.

키클롭스 연방 공화국,

아우로라 대륙 동부에 위치한 이 국가는 평등과 자유를 갈망했던 자들이 만들어낸 보금자리이다.

이들은 한때 케프리아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이들의 후예로, 케프리아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일어난 이들로 인해 발생한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던 국가를 벗어나 높다 높은 산맥을 넘어 자리를 잡았고 이 산맥을 방벽삼아 독립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거대한 장벽을 넘어 등지를 튼 이들이 갖게 된 것은 자유와 보금자리 뿐만이 아니었다.

땅속에서 발굴해낸 미지의 유적,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해낸 오파츠는 그야말로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의 심장과도 같았다. 이 오파츠는 현대의 어떤 과학기술력으로도 알아낼 수 없었던 미지의 기술력의 집합체였다.

이 귀중한 유물은 지금껏 쓸모없는 물질이라고 여겨진 부유석을 원재료로 하여 아주 소중한 동력원인 그래비티 코어로 만들어 주었다.

꿈과 같은 이 궁극의 동력원은 부유석을 촉매로 하여 다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다.

크기에 비해 거대한 에너지가 잠재된 이 환상의 기술은 키클롭스의 기술산업에 큰 변혁을 가져왔고 이를 군사기술에도 응용하여 키클롭스의 무기체계에 변화를 일으킬 정도였다.

그러나 이 그래비티 코어는 오직 오파츠를 통해서만 제작이 가능했고, 키클롭스는 이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엄중히 관리하게 된다.

케프리아 제국,

키클롭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케프리아 제국은 키클롭스를 제외한 아우로라 대륙에서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패권국가다. 케프리아 제국은 한때 자신들의 노예였던 이들의 후예가 자신들과 동등한 관계로 나아가려는 키클롭스가 좋게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케프리아는 키클롭스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빈번하게 감행해 왔지만 키클롭스를 둘러싸고 있는 산맥과 복잡한 해안선은 그야말로 천해의 장벽이었다. 케프리아는 키클롭스 고유의 기술인 그래비티 코어를 모방하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빈번히 실패했고 이 그래비티 코어를 손에 넣기 위해 키클롭스를 상대로 여러가지 수단을 꾀하고 있다.

키클롭스에 존재하는 이노테크 인더스트리는 키클롭스군에 다양한 군사장비들을 조달하는 군수기업이다.

이노테크를 창시한 이노테크의 CEO는 막강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철학에 의해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기의 설계안을 국가에 보고했고 키클롭스 정부는 빈번히 무기의 설계안을 기각하였다.

그가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엔 그래비티코어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고 그래비티 코어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이노테크의 CEO는 키클롭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래비티 코어를 손에 넣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마침 케프리아 측에서 이노테크의 CEO에게 같이 손을 잡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노테크는 케프리아에게 제공받은 기술력으로 이노테크의 사병조직을 만들었으며 이노테크의 CEO는 자신의 계획을 점차 실행에 옮겨가고 있었다.

제 1작전

Scene#1(수송헬기 내부, 작전 브리핑)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밤, 수송헬기가 건물 위를 누비며 어느 공장 부지로 나아가고 있었다.

레이첼, 다니엘, 제이크, 게리는 수송헬기에서 작전 시작전 브리핑을 전달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아우리스측 정보요원이 임무를 브리핑 하기 시작했다.

"반갑다 오쿨러스의 R 스쿼드 대원들. 나는 이번 작전에서 오퍼레이터를 담당한 '닐슨' 이라고 한다. 편하게 N이라고 부르도록."

"우리 아우리스 측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노테크의 수상한 행적이 포착됐었다."

"이노테크의 생산물자가 회계장부에 적혀져 있는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이를 좀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 첩보원이 이노테크의 생산공장으로 파견됐으나, 그곳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는 연락을 끝으로 MIA(작전중 실종) 상태가 되었다."

"대원들이 말을 이번 작전의 목표는 이노테크의 산하의 생산공장으로 가서 실종된 아우리스의 대원을 구출하고, 중요한 문서자료가 있다고 추정되는 공장 사무실로 가서 증거자료를 탈취하면 된다."

"건투를 빈다. 제군들"

임무 브리핑 스크린이 종료되고 작전 시작 전 R스쿼드의 분대장 레이첼은 세부적인 임무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자 R스쿼드 제군들, 아까 헬기에서 대략적으로 알아들었지? 이번 작전에서 맡은 임무를 세부적으로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

"우선 D는 공장부지 정문, 나머지 공장부지 후문에서 작전을 시작한다"

"예 대장님~"

다니엘이 능청스럽게 답했다.

"작전이 시작되면 D는 공장부지 정문으로 돌파한 뒤 부지 중앙에 있는 관제탑 쪽에서 소란을 피워 병력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무섭다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

"농담도 심하셔라~ 대장이나 겁먹지 마시죠~"

다니엘과 레이첼은 키들거리면서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어서 레이첼이 다음 임무를 브리핑하였다.

"우린 다니엘이 소란을 피우는 동안 공장부지 후문으로 가서 각자 맡은 건물을 수색하도록 한다"

"먼저 J 요원?"

제이크는 조용히 끄덕거렸다.

"J 요원은 증거문서가 위치해 있는 사무실 3층의 서버실에서 증거문서를 탈취하도록 한다. 누구처럼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자고? "

제이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봐져. "

"이어서 우리 들킨 G요원? G는 창고 옆건물에 있는 공장 내부를 수색하도록 한다. 너 정도 맷집이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확인했습니다"

분대원들의 임무를 모두 브리핑한 레이첼은 이어서 자신의 임무를 브리핑했다.

“여러분이 재미 좀 보는 동안, 난 창고를 수색하면서 MIA처리된 요원을 찾아보겠다. 요원을 발견하면 바로 구출시키도록 하지. ”

수송헬기의 레펠이 내려가고 대원들은 각자 준비 위치로 이동했다.

“작전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궁지에 몰려도 우린 어떻게 해야되지?”

“”거대한 눈으로 꿰뚫고, 괴물의 입으로 집어삼킨다!””

“좋아, 다들 다치지 말라고”

임무1[관제탑 점령(다니엘)]

Scene#2(공장 부지)

임무 시작전 다니엘이 말했다.

“이봐 G, 어렸을 때 마이키 아저씨가 우리 훈련시켰던거 기억나? 이렇게 다시 모이니 옛날 생각나네”

“D, 임무 중엔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마라”

“재미없기는~”

다니엘은 공장부지 정문에 다다랐을 즈음 레이첼이 무전을 하였다.

“D요원? 어디 다치면 G요원 불러, 바로 달려올지도 모르니깐.”

다니엘은 킁킁거리며 여유로운 말투로 답하였다.

“아이~ 걱정도 팔자입니다 대장~”

무전을 마친 다니엘은 공장부지 정문 앞에 보초를 서고 있는 경비대원 방향으로 걸어갔다. 다니엘을 발견한 경비대원이 총을 겨누며 경고했다.

“출신과 소속을 밝혀라, 불응할 시 대응 사격하겠다”

다니엘은 씩 웃으며 속삭였다.

“그럼 어디한번 소란 좀 피워 볼까?”

다니엘은 로켓런처를 꺼내 포탑이 있는 정문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였다.

발사된 로켓은 눈 깜짝할 새에 정문으로 날아가 섬광을 일으키며 폭발하였고, 얼마 안가 공장 전체로 경보음이 울렸다.

“코드네임 S 발령. 코드네임 S 발령. 공장부지 내 병력들은 정문으로 집결하라”

다니엘은 자욱한 연기로 뒤덮인 정문을 통해 공장 부지로 들어간 뒤 내부를 살폈다. 그의 눈앞엔 공장부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제타워가 우뚝 솟아 있었다.

“저곳으로 가야 된다라...이거 끝내주게 재밌겠는걸?”

그는 미소를 지은 뒤 기관총을 꺼내 호기롭게 눈앞의 병력들과 드론들을 상대해 나갔다. 그의 기관총 앞에서 수많은 병력들은 한없이 무력했다.

“끝내주는데!”

병력들을 처리하는 동안 관제타워 뒤편 컨테이너 위쪽에서 무언가를 보였고 다니엘은 불안한 직감을 본능적으로 느껴 드럼통 더미 아래로 빠르게 엎펄하였다. 저격수의 공격이었다.

“젠장, 머리 날아갈 뻔했네.”

다니엘은 투덜거리며 레이저 빔 캐논을 꺼내 에너지를 충전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쪽도 뭔가를 보여줘야 타산에 맞겠지?”

다니엘은 레이저를 충전한 뒤 모습을 드러내 자리를 잡고 있던 저격수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했다.

한줄기 빛과 함께 컨테이너의 상단부가 형체도 없이 파괴되었다.

“역시 내 총이라니깐!”

다니엘은 기관총을 장전하기 위해 잠시 엎펄을 하였다. 그 순간 닐슨 요원이 긴급히 무전을 하였다.

"D요원, 조심해라. 현재 이노테크의 정예병력들이 생산공장 부지로 가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어떤 굉장한 녀석들이길래 그러실까~"

다니엘은 능청스럽게 다시 장전한 기관총으로 이노테크의 병력들을 문자 그대로 압도하고 있었다.

이때 수많은 통통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니엘에게 포격이 날아왔다. 순간 다니엘은 재빠르게 컨테이너 뒤쪽으로 엄폐하여 무사할 수 있었다.

"으... 이걸 진짜로 죽을 뻔했네..."

다니엘이 숨을 고르려고 하기 무섭게 통통 거리는 소리와 함께 컨테이너 사이로 유탄이 날아와 폭발하였다. 자욱한 연기 사이로 다니엘의 앞에 유탄발사기를 들고 있는 이노테크의 엘리트 병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미 자리를 피해 레이저 캐논의 충전을 끝마친 상태였다.

"그거 참 끝내주는 총인데 친구?"

레이저가 발사되고 두 컨테이너 사이로 폭발이 일어났다.

"갈때도 참 요란하게 가는구만~"

다니엘은 장갑차 측면으로 이동하여 여유롭게 기관총을 장전하며 상황을 살피던 중 관제탑 뒤편으로 거대한 체형의 사내를 목격하게 된다.

순간 수십발의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제기랄, 오늘 재수 옴 붙었구만"

다니엘은 투덜거리며 장갑차 측면에서 로켓런처를 준비한 뒤 장갑차의 주변으로 연막탄을 던졌다. 자욱한 안개 사이로 수십, 아니 수백발의 총탄이 난무했다.

연기가 가신 뒤 기관총을 든 엘리트 병사는 같이 동행한 병사들에게 장갑차를 살펴보라고 손짓을 하였다. 이노테크의 병사들은 장갑차를 살피러 갔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병사들의 발밑에서 수류탄이 굴러왔고 수류탄은 병사들이 당황할 새도 없이 곧바로 폭발하였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트 병사는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였다.

이때 다니엘이 외쳤다.

"술래잡기라도 하시게?"

기관총을 들고 있던 엘리트 병사는 순간 고개를 돌렸지만 다니엘의 산탄총은 이미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총성과 함께 엘리트 병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여기는 콜사인 D, 관제탑을 확보했고 공장 외부의 병력들ㅇ..."

무전을 끝마치기 무섭게 공장건물 정문이 폭발하였고 그곳에서 누군가 날아왔다. 날아온 자는 다름아닌 게리였다.

"크흑... 저녀석들 이런 걸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다니엘의 앞에서 쓰러진 게리가 가파르게 숨을 고르며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다니엘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게리가 날아온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때 공장건물 정문에서 무언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여...여기는 콜사인 D,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육중한 기계 슈트가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임무2[기밀문서 탈취(제이크)]

Scene#3(사무실 내부)

다니엘이 정문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R스쿼드 대원들은 공장부지 후문의 병력들을 각개격파하며 성공적으로 침투하였다. 셋은 각자 가야 할 장소로 가고 있었다.

“좋아 제군들, 다들 각자 어디에서 놀아야 하는 지 알고 있지? 조금 있다 밖에서 만나자구”

레이첼의 무전을 마지막으로 제이크는 건물 외벽에 매달리며 창문을 통해 사무실 로비를 지켜보며 묵묵히 상황을 + 읽고 있었다.

사무실 내 병력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을 시점. 제이크는 저격소총으로 두명의 경비원들을 한 번에 사살했다.

“여기는 콜사인 J, 사무실 건물 내부로 진입한다”

“잘 했다 J, 내부 로비엔 승강기 쪽 하나, 데스크쪽 복도에 두명의 병력들이 순찰을 하고 있을 것이다”

“봐져”

닐슨의 브리핑에 따라 제이크는 불이 꺼진 사무실 로비로 들어가 승강기 쪽의 병력을 저격한 뒤 와이어를 이용해 데스크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복층으로 올라가기 전 복도 쪽으로 이동한 뒤 두 명의 병력들을 자동소총 모드로 변환해 신속하게 제거해 나갔다.

복도를 나선 뒤 난간쪽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저격수를 저격한 뒤 와이어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상황을 살피던 제이크는 자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발견하곤 고개를 숙여 총탄을 피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저격수는 총탄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었고. 그는 와이어를 이용해 신속하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반자동 저격소총이로군...’

섬광탄을 꺼내 엘리트 저격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던진 후 잠시 뒤 고개를 돌린 채 난간 방향으로 뛰쳐나왔다.

그가 뛰쳐나온 순간 섬광과 폭발음이 일었으며 섬광탄이 터지자마자 제이크는 다시 고개를 돌린 뒤 와이어를 이용해 엘리트 저격수가 보이는 방향으로 자리를 자리를 잡았다.

섬광탄으로 인해 무방비해진 엘리트 저격수는 제이크의 총탄에 그자리에서 쓰러졌다.

엘리트 저격수를 제압한 제이크는 복도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헛... 저녀석이 증원을 요청했나 보군’

제이크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복도로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였고, 폭발과 동시에 병력들이 튀어나왔다.

제일 먼저 튀어나온 병력을 제거한 뒤 자동소총 모드로 전환해 살아남은 잔당들을 제거해 나갔다.

‘잘 됐군, 군수기업의 병력들이라 쓸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군!’

쓰러진 병력들의 물자를 가져간 뒤 복도를 통해 3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찾고 있었다.

‘전달받은 정보에 따르면 3층 서버실에 증거 문서가 있다고 했는데...’

내부를 수색하던 중 비상계단을 발견하였고 그쪽으로 가는 순간 비상계단의 문이 부숴지고 기관총을 든 엘리트 병사와 일반 병사들이 따라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이크는 침착하게 벽 뒤로 몸을 숨긴 뒤 생각했다.

‘정면돌파는 어렵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꽤나 큰 도박이 될 수도 있겠어.’

그는 연막탄을 던져 주변 시야를 가린 뒤 반대쪽 복도로 우회하였다.

연막탄이 터지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 연막탄 쪽을 살피러 간 병력 하나는 제이크가 함께 던진 수류탄의 폭발에 휘말렸다.

경비 병력 무리들은 당황한 듯 폭발이 발생한 방향으로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반대쪽 통로에서 섬광탄이 날아 들어왔다. 섬광탄이 폭발하자 병력들은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었다.

제이크는 곧바로 뛰쳐나와 일반 병력들을 신속하게 저격한 뒤 남아있는 엘리트 병사를 향해 저격총의 출력을 올리기 시작했다.

발사된 탄환은 엘리트 병사를 꿰뚫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제이크는 쓰러진 병력들을 뒤로 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서버실이 있는 3층 복도로 올라갔다.

비상구의 문을 열자마자 일반 병력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병력들을 배치해놨을 줄이야...’

비상구 통로로 엄폐하여 저격과 자동사격 모드를 전환해 가면서 남아있는 병력들을 처리한 제이크는 기밀 문서가 위치해 있는 3층 서버실로 들어갔다.

“N, 서버실에 도착했다. 즉시 기밀문서를 전송시키도록 하지.”

제이크는 서버실 컴퓨터에 해킹 툴을 쏙은 뒤 그 자리에서 대기하였다.

“수고했다 J 요원, 실종된 아우리스 측 요원이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발견했다.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봐져”

해킹 툴을 뽑은 뒤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순간.

“여...여기는 콜사인 D,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무전에서 굉음이 들린 뒤 통신이 종료되었다.

“젠장,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군.”

제이크는 창문들에 와이어를 걸어 창밖으로 뛰쳐나갔다.

공장부지 건물 사이를 빠르게 지나 관제탑쪽으로 향한 그가 목격한 것은 다름아닌 쓰러져 있는 게리와 당황한 듯한 다니엘,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슈트가 있었다.

임무3[요원 구출(레이첼)]

Scene#4(물류 창고)

“주변 병력들을 모두 섬멸했다. 목표구역으로 돌파한다. 이곳에서 실종된 요원을 수색해보고 필요할 만한 정보를 찾으려면 알리도록 하지.”

“아주 잘해주었다. 대원이 진입한 이 물자 창고엔 폭발위험 물자가 있지만 키클롭스 안전법에 의거하여 건물과 물자 보관함에 방폭 처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물자 창고로 진입한 레이첼은 주변 구조물로 엄폐를 시작했다. 이후 자신의 초음파 드론을 발동시켜 그녀가 위치한 곳을 스캔해 자신의 고글을 통해 창고 내부 병력들을 파악하였다.

‘우선 제일 위험한 녀석부터 처리해볼까’

레이첼은 연막탄을 투척하여 적들의 시야를 가렸다. 이후 재밍 드론을 조종하여 엘리트 저격수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섬광탄 투척’

연막 속으로 섬광탄을 던져 전방의 적들을 무력화한 뒤 초음파 드론으로 파악한 위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 일반 병력들과 엘리트 저격수를 쓰러뜨렸다.

쓰러진 병력들로부터 물자를 얻은 레이첼은 다시 한번 초음파 드론을 가동하였다. 선반 너머로 보이는 병력들을 쫓아 하나 둘 처치해 가는 와중 어디선가 유탄을 발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

레이첼은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챘고 재빠르게 회피하여 폭발을 피할 수 있었다.

‘방폭 설계가 돼있다고 하지만 유탄병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말이지...’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침착하게 날아오는 유탄을 피해가며 엘리트 병사를 향해 대응사격을 하였다.

유탄병은 선반 사이사이를 도망치듯 이동하여 사각지대를 끼고 레이첼을 향해 유탄을 발사하여 그녀를 궁지로 몰았다.

‘그렇지만 내 시야를 벗어날 순 없지’

초음파 드론을 작동시켜 유탄병의 위치를 확인한 레이첼은 거리를 벌려 재밍 드론을 조종하여 유탄병의 무장을 무력화시킨 뒤 거리를 좁혀 유탄병을 쓰러뜨렸다.

“이 녀석, 키 카드를 갖고 있네?”

엘리트 병사가 갖고 있던 키 카드를 챙긴 레이첼은 창고에서 쓸 만한 물자들을 챙긴 뒤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열었다. 계단에서 재밍 드론으로 전방에 있는 병력을 무력화시킨 뒤 병력들을 제거하여 지하실로 돌파하였다.

공간을 확보한 레이첼은 좌측 문에서 경비병력 하나가 튀어나온 걸 목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였다.

문 너머에 적이 없는 걸 확인한 레이첼은 그곳으로 숨어들어갔고 그곳엔 충분한 양의 그래비티 코어와 물자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됐어, 공간도 물자도 확보했겠다, 이제 여유롭게 해 볼까?’

선반 너머로 연막탄을 투척한 레이첼은 초음파 드론을 작동시켰다.

“빅 브라더, 작동 개시”

안개 속에서 적들은 무력하게 레이첼의 총탄에 하나 둘 쓰러져 갔다.

지하실을 장악하던 와중 전기실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였다.

‘흐음~ 어디 불장난 좀 쳐 볼까?’

창고의 전력을 차단한 레이첼은 불이 꺼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병력들을 제압하며 기세 좋게 돌파해 나갔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엘리트 병사가 그녀를 향해 중기관총을 발사하였고, 레이첼은 재빠르게 선반 뒤로 었페했다.

‘큭... 중기관총은 예상치도 못했네, 한번이라도 잘못 걸리면 그대로 끝장나겠는데.’

레이첼은 침착하게 재밍 드론을 조종하여 엘리트 병사의 무장을 무력화시켰다. 이후 또다른 보조 기관단총을 꺼내 뛰쳐 나온 뒤 무장이 해제된 엘리트 병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수십발의 총탄들은 한순간에 엘리트 병사의 몸을 벌집으로 만들었다.

“후우... 한곳 차이였어...”

메디킷으로 응급처치를 한 뒤 창고 지하를 둘러보았다. 양쪽에 잠겨 있는 문들이 있었다.

방금 쓰러뜨린 엘리트 병사에게서 얻은 키 카드로 먼저 좌측 문을 열었다. 연구실 같아 보이는 곳이었다.

“아머드...슈트?”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청사진을 발견한 레이첼은 닐슨에게 무전을 걸었다.

“N? 뭔가 중요해 보이는 걸 찾았어. 무기체계의 설계도 같은데,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확인했다. 작전이 끝나면 해당 자료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연구실로 추정된 곳을 나온 뒤 나머지 잠겨 있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한 사내가 결박되어 있었다.

“저녁?”

그녀의 암구호에 사내는 답하였다.

“...귀향.”

“휴우, 무사했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닐슨 요원에게 무전을 걸었다

“여기는 R, 실종된 너희 친구들을 찾았다, 바깥쪽으로 탈출시켜 줄 테니 잘 에스코트해 주라고.”

풀려난 아우리스 요원은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오쿨러스에서 왔나? 지금 밖의 상황은 어땠지?”

“우리 친구들이 아주 멋진 공연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공장쪽 상황은 어떤가, 그곳엔...”

이때 게리에게 무전이 날아왔다

“여기는 G, 공장 내부는 전부 정리했다. 나머지 한곳만 확인하면 된다.”

아우리스 요원이 다급한듯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공장쪽 요원! 열린 그곳을 벗어나라! 그곳엔...!”

“이...이게 무슨... 크윽...!”

“!?”

무전이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엘에게 무전이 날아왔다”

“여...여기는 콜사인 D,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임무4[공장 수색(게리)]

Scene#5(군수공장 내부)

게리는 공장 건물 주변의 병력들을 쓰러뜨리며 공장 뒷문으로 도달하였다.

“여기는 G, 공장 내부로 진입한다”

에너지 실드를 두른 뒤 휴게실 문으로 돌진하였다. 문 뒤에서 경계를 서던 병사는 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주변을 경계하던 이노테크의 병력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응사격을 했다.

게리는 그 자리에서 엄폐물을 설치하였다. 그의 앞으로 증원 병력들이 왔지만 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류탄을 투척하여 대응했다. 엄폐물 바깥 쪽 상황을 살피는 순간 수십발의 탄알이 난무했다.

엘리트 병사가 기관총을 사격하고 있었다.

“시작부터 난관이군.”

에너지 역장을 전개한 뒤 엘리트 병사를 향해 돌진하였다. 엘리트 병사는 총탄을 퍼부었지만 그의 에너지 역장을 뚫기엔 소용없었다. 게리와 부딪힌 엘리트 병사는 그 자리에서 내동댕이쳐졌고, 게리는 산탄총으로 엘리트 병사를 침묵시켰다. 상황을 정리한 게리는 사주를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공장 내부를 수색하는 동안 저격수가 게리를 목격하였고, 얼마 안가 어디선가 총탄이 날아왔다.

‘젠장, 저격수가 있군’

총탄이 날아온 방향과 소리를 통해 공장 윗쪽에 경비 드론과 저격수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공장 2층 난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저격수를 발견하였다.

산탄총의 사격 모드를 바꿔 게리를 발견한 드론을 제거한 뒤 저격수를 향해 대응사격을 하였다. 위치를 들킨 저격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저격수가 자리를 떠나기 무섭게 그의 앞으로 병력들이 몰려왔다. 그 자리에서 엄폐물을 설치한 뒤 자신에게 다가오는 병력들을 쓰러뜨렸다.

병사들이 하나 둘 쓰러져 가는 와중 어디선가 유탄을 발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곧 이어서 그의 앞으로 몇 차례 폭발이 일어났고, 그의 엄폐물은 폭발에 휘말려 산산조각났다.

‘공장 내부에 유탄병이 있을 줄이야... 공장 설비는 아무래도 좋다는 의미인가? 우선 이곳을 벗어나야겠어.’

그는 다시 한번 에너지 역장을 두른 뒤 병력들을 향해 돌진하였고 돌진에 휘말린 적들은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갔다.

이때 공장 설비 너머로 주변을 살피던 유탄발사기를 들고 있던 엘리트 병사와 눈이 마주쳤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유탄병을 향해 산탄총을 사격하였다. 엘리트 병사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며 사각지대를 통해 유탄을 발사했지만, 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끈질기게 쫓아 응징하였다.

‘경비 병력들이 이 정도의 화기를 갖고 있단 건 이곳에 무언가를 숨겨 놨다는 건가?’

한참 생각하던 와중 아까 도망쳤던 저격수가 게리를 향해 또다시 저격을 시도했다.

“젠장, 아까 그 녀석이로군”

게리는 침착하게 사격음이 들렸던 쪽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얼마 안가 그의 눈에 저격수가 들어왔고, 그는 우선 주변 공장 설비 쪽으로 엄폐하였다. 곧 이어서 저격수 방향으로 섬광탄을 투척하였다.

섬광탄이 폭발함과 동시에 게리는 곧바로 저격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무방비해진 저격수는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상황을 정리하고 공장 내부를 계속 수색하던 와중 생산된 물자들을 임시로 보관해 놓는 선반을 발견하였다.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됐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보관된 대부분의 물자들이 키클롭스군의 사양과 동일한 것들이었다. 부족하거나 파손된 장비를 보충한 뒤 공장의 또다른 구역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은 뭘 생산하는 곳이지...?”

“스켈 슈트를 생산하는 구역 같긴 한데... 뭔가 달라...”

스켈 슈트와 접이식 엄폐물 등 각종 군수물자를 생산했던 기존 구역과는 달리 어딘가 익숙하지만 서도 낯선 분위기의 공간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중 이노테크의 병력들이 다시 한번 그를 가로막았고 곧바로 엄폐물을 설치해 그 자리에서 남은 병력들을 처리하였다.

“후우... 더 이상 남은 병력들은 없는건가.”

병력들을 모두 소탕한 게리는 레이첼과 닐슨에게 무전을 하였다.

“여기는 G, 공장 내부는 전부 정리했다. 나머지 한곳만 확인하면 된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곳의 문을 열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로봇이 그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잠시 뒤 다급한 듯한 목소리의 무전이 날아왔다

“공장쪽 요원! 얼른 그곳을 벗어나라! 그곳엔...!”

“이...이게 무슨... 크흑...!”

거대한 로봇이 그를 붙잡아 닫혀 있는 공장 정문으로 내동댕이쳤다. 이어서 공격을 준비하려는 듯 자세를 취했고 게리는 빠르게 방벽을 설치해 직격타를 피했지만 폭발에 휘말려 공장 부지로 튕겨져 나왔다.

“크... 저녀석들 이런 걸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그의 뒤쪽에서 당황한 듯한 다니엘이 무전을 전하고 있었다.

“여...여기는 콜사인 D,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임무5[아머드 슈트 프로토 타입(보스전)]

Scene#6(공장 부지)